

# 꿈의무대 도전 박병호 '웃고' 김현수 '울고'

## 박병호 25인 로스터 진입 김현수마이너리그 예상

KBO리그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이루고 꿈의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와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운명이 엇갈렸다.

'코리안 슬러거' 박병호는 개막전 로스터 진입에 성공한 반면 '타격기계' 김현수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O리그 4년 연속 홈런왕에 빛나는 박병호는 개막전 25인 로스터 진입이 확실시된다. 구단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부상 변수만 없다면 개막전부터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호는 시범경기에서 성적으로 기량을 입증했다. 시범경기 타율 0.286(49타수 14안타) 3홈런 13타점을 기록 중이다. OPS(출루율+장타율)는 0.830이다.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 3연속 삼진을 당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박병호는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안타를 신고한 뒤 일주일 동안 만루포 포함 홈런 3개를 몰아치며 특유의 장타력을 뽐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인상적이다. 낮은 환경과 다른 유형의 투수들에게 적응하며 17경기 중 5경기를 제외하고 안타를 생산해내고 있다. 투상에 주장을 두고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기회를 살렸다.

지난 시즌 소속팀 두산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안기고 FA(자유계약선수) 자격으로 옮기분하게 볼티모어에 입단한 김현수는 부침이 심하다.



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

시범경기 초반 28타수 무안타에 그치는 극도의 부진을 보인 김현수는 8경기 만에 마수없이 안타를 때렸다. 이후 7경기에서 19타수 8안타로 타격감을 끌어올리나 싶더니 2경기 연속 침묵했다.

시범경기 16경기에서 타율 0.182(44타수 8안타)에 그치고 있다. 8개의 안타 모두 단타다. 타점은 2개, 볼넷은 1개에 불과해 기대를 걸었던 출루율도 2할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급기야 현지에서는 김현수가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김현수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FOX스포츠 칼럼니스트 켄 로젠탈은 30일(한국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현수가 볼티모어의 개막 로스터에 합류하지 않고 트리플A로 내려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는 김현수가 마이너리그행에 동의하며 구단과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현수는 지난 27일 보스턴전에 대타로 출전한 뒤 시범경기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애크랜더와의 경기에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팀이 로스터 정리에 들어가면서 남아 있는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타격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는 사뭇 달라 보도에 신빙성을 더했다.

보도대로라면 김현수가 마이너리그에서부터 출발해 빅리그에 제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병호와 김현수는 KBO리그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메이저리그팀과의 계약에 성공했지만 서로 다른 출발선상에 서게 됐다.

공교롭게도 미네소타와 볼티모어는 개막전 맞대결이 예정돼 있다.

KBO리그를 주름 잡던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방망이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내심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누구는 안심하고 다른 누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꿈의 무대를 밟게 될 박병호는 빅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기대와 달리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하게 될 김현수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시 한 번 비상을 준비를 하면 된다.

기대와 달리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하게 될 김현수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시 한 번 비상을 준비를 하면 된다.

기대와 달리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하게 될 김현수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시 한 번 비상을 준비를 하면 된다.

기대와 달리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하게 될 김현수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시 한 번 비상을 준비를 하면 된다.

기대와 달리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하게 될 김현수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시 한 번 비상을 준비를 하면 된다.

기대와 달리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하게 될 김현수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시 한 번 비상을 준비를 하면 된다.

## A매치 친선전 잉글랜드 네덜란드에 역전패

'전차 군단' 독일을 격파하며 포효하던 잉글랜드가 네덜란드에 역전패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로이 호지슨(68)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은 30일(한국시간)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A매치 친선전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잉글랜드는 이날 경기에서 제이미 바디의 2경기 연속골에 힘입어 독일전에 이어 패조의 2연승을 거두는 듯 했다.

바디는 전반 41분 골백 카일 워커의 패스를 이어받아 네덜란드의 골망을 흔드는 등 물오른 골감각을 선보였다.

나승하는 듯 하던 잉글랜드는 후반 5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기울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루치아노 나르싱의 측면 크로스가 대니 로즈의 손에 맞아 심판은 지체없이 휘슬을 불었고 안센이 침착하게 키를 성공시켰다.

호지슨 감독은 실점 뒤 시오 윌콕과 주포 해리 케인 등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다시 실점을 하며 무너졌다.

나르싱은 후반 32분 페널티킥 특점의 주인공인 안센의 패스를 이어받아 논스톱 슈트로 역전골을 터뜨리며 거함 잉글랜드를 침몰시켰다.

/김민근기자

## 황 총리, 체육계 스타 만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당부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국민 마라톤' 이봉주씨 등 체육계 스타 13명을 만나 "한 번 국가대표는 영원한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희망의 리더'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체육계 스타 13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 그리고 나눔과 화합을 위해 같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황 총리는 "지금 안팎으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어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지만 매미론 사회 분위기가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기부참여율은 34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25위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눔 문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분들과 같은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사회 공헌 참여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총리실은 "사회 공헌 활동 장려 차원에서 체육계 주요 스타들과 만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계, 대중문화계 등 사회 각 분야 리더들과의 만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12개 국 결정

## 티켓 4.5장 놓고 격돌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다룬 아시아 지역 12개국이 결정됐다.

일본과 호주가 조1위로 최종예선에 합류했다. 중국도 카타르를 꺾고 극적으로 티켓을 확보했으나, 필리핀에 패한 북한은 탈락했다.

일본은 29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차예선 E조 최종전에서 5-0 완승을 거뒀다.

7승1무가 된 일본은 승점 22점으로 시리아(승점 18)를 제치고 1위로 최종예선 무대를 밟는다.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첫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쳤지만, 이후 7경기에서 압도적 경

기력을 보였다. 27골을 넣는 동안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일본은 전반 17분 상대 수비의 자책골에 힘입어 리드를 잡았다.

전반에 한 골을 얻는데 그친 일본은 후반 화력을 집중시켰다. 후반 21분 가가와 신지의 골로 격차를 벌리더니 20분 뒤 혼다 케이스케의 골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가가와와 히라구치 겐키가 골맛을 보면서 대승을 완성했다. 이날 일본에 대패한 시리아도 최종예선행을 확정했다.

8개조 2위 팀 가운데 상위 4개팀에 주어지는 티켓을 확보했다.

호주는 인방에서 요르단을 5-1로 꺾고 7

승1패(승점 2)로 B조 1위를 차지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중국 슈퍼리그 항저우 그린타운에서 뛰고 있는 팀 케이힐은 두 골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최종예선 진출이 유력하던 북한은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원정경기에서 약체 필리핀에 2-3으로 역전패하며 8개조 2위 팀 중 상위 4개팀에 주어지는 티켓 확보에 실패했다.

북한은 후반 40분까지 2-1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두 골을 빼앗겼다. 마누엘 오트에게 동점골을, 레인 램세에게 역전골을 허용해 통탄의 패배를 당했다.

북한은 5승1무2패(승점 16)로 H조 2위를 기록했지만 최종예선 티켓 확보에 실패했

다.

C조의 중국은 카타르를 2-0으로 완파하고 5승2무1패(승점 17)로 최종예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황보윈과 우레이가 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며 극적으로 최종예선 막차를 탔다.

이로써 최종예선에 진출할 12개 나라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카타르, 이란,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중국, 시리아, 이라크로 정해졌다.

이들 12개 나라는 오는 12일 조 추첨을 통해 2개조로 나눠 월드컵 본선 티켓 4.5장을 놓고 축구전쟁에 돌입한다.

한편, 한국은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톱시드 획득에 실패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